

여성 과학소설의 유토피아 구성: 어슐러 르 귄의 『어둠의 왼손』*

장 정 희
(광운대학교 / 교수)

Chang, Junghee. Construction of Utopia in Feminist Science Fiction: Ursula K. Le Guin's *The Left Hand of Darknes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7 (2020): 199-224. This paper examines construction of utopia in feminist science fiction focusing on Ursula K. Le Guin's *The Left Hand of Darkness*. Le Guin constructs Gethen/Winter as the gender-fluid society inhabited by androgynous creatures and subverts the traditional concept of gender identity. As the androgynous society, Gethen is free from division of labor by sex, strong drive toward progress, threat of war, and technological exploitation. Le Guin criticizes racialism and gendered hierarchical structures in her contemporary society and emphasizes the value of real communication and transcendence of dualism through Genly and Estraven's hard journey on the Gobrain ice. Especially Genly comes to understand true nature of androgynous society through Estraven's love and sacrificing spirit. He also realizes that the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end through the journey. Le Guin contributes to offering the strategic reference for the feminist science fiction writers who attempt to actualize new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 by suggesting utopian vision of future based on transcendence of dualism and gender polarization. (Kwangwoon University)

Key words: feminist utopia, androgyny, gender, Ursula Le Guin, *The Left Hand of Darkness*

I. 머리말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은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일종의 실험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러한 실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과학소설은 우리

* 이 논문은 2020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과 다른 일련의 가설들에 가반을 두어 새롭게 변화된 세계를 경험하고 창조하게 해주어 독자들이 새로운 세계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파멜라 아나스(Pamela J Annas)는 과학소설이 철학적 정치적 가설들을 구체적 용어들로 작동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새로운 가능성들을 자신의 삶속으로 가져가도록 해준다고 지적한다(146). 과학소설 장르의 이러한 혁명적 잠재력은 당대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실천성 있는 대안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있다.

과학소설은 남성작가들의 주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경향이 있으나 1970년대의 과학소설은 1960년대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등에서 힘을 얻기 시작한 페미니즘 운동, 즉 제 2차 물결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¹ 이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했는데 중요한 변화들 중의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었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권력 차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없다면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가상의 설정은 성차별 없는 사회를 구상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여성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로 가상의 행성을 창조함으로써 성차가 권력차로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적으로 구성하였다. 수전 마거리(Susan Magarey)는 이러한 시도에 몰두한 대표적 여성

¹ 2차 페미니즘 운동은 가정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더 큰 평등을 향해 나아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를 중시하고 과학에 근거한 가상 세계를 설정해보는 과학소설의 성격으로 인해 과학소설은 페미니즘의 주장들을 담아 내기에 적합한 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젠더 문제는 과학소설의 각종 장치들을 통해 일상에서 당연시 되던 가부장적 구조들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을 각성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젠더에 대한 전통적 가설들을 해체하고 젠더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과학소설 작가들은 양성 평등이 이루어진 가상적 공간을 창조해내며 그 속에서 가부장적 구조들의 대안들을 검토해내고 있다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179참조).

과학소설가들로 조애너 러스(Joanna Russ), 어슐러 르 귄(Ursula K. Le Guin), 마지 피어시(Marge Piercy) 등을 들고 있다(126). 이들의 활동을 통해 과학소설 장르의 젠더와 성 문제를 자유로이 탐색하는 장이 되었고, 과학소설에서 등한시되던 젠더나 성 문제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페미니즘 운동 및 정치학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주요한 위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와 70년대 여성 과학소설가들의 활동은 새로운 실험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이들이 작품을 통해 구축하려 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들은 과학소설 장르의 전통에서 특이한 위치와 의의를 지닌다. 대안 세계에 대한 열망을 담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적 사고는 앤 멜로(Anne K Mellor)가 지적하듯이 과학소설 장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데, 과학소설은 사회 조직이나 윤리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가설들을 시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244). 실제로 판타지가 아닌 구체적인 유토피아적 사고는 실질적 사회적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과학소설은 잠재적으로 실현가능한 세계를 그림으로써 작가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악의 기원과 속성을 정확히 규정하려한다. 즉 유토피아를 다룬 과학소설은 현재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역사에서 유토피아적 비전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제안들을 내놓는다. 구체적인 유토피아적 사고는 실제로 유용한 사회개혁을 위한 지침들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며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연구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으나 페미니즘과의 접점에 대한 국내 연구는 본격화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²

멜로는 페미니스트 이론이 본질적으로 유토피아적이라고 지적한다

² 김명진의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월든』의 틀로 미래 시대의 유토피아 상상하기」도 다양한 유토피아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영어영문학』 76 (2020):1-32.

(243). 그 근거로는 과거 역사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젠더 평등의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젠더 평등에 대한 바람직한 모형들은 미래를 향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대안이 되는 세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과학소설가들의 유토피아 구성은 불평등한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로부터 남녀 모두를 해방시키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대안적 방식들을 제공한다.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적 사고는 성적으로 동등한 대안적 모델들을 제공하며 당대의 페미니즘 운동의 동인이 되는 기원과 방향들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과학소설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텍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미래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젠더 평등에 관한 미래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다룬 작품들 중 어슐러 르 권의 『어둠의 왼손』(*The Left Hand of Darkness*)은 여성 과학소설가들의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구성에 주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르 권이 양성성이 핵심인 행성의 구성을 통해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여성 정체성 형성이나 젠더 구성의 미래 방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르 권의 텍스트는 가상의 유토피아 공간을 통해 젠더, 인종, 양성 평등의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는가에 대해 하나의 참조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여성 과학소설의 유토피아 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어둠의 왼손』에 제시된 게센/겨울(Gethen/Winter)행성의 핵심적 특징, 즉 양성성에 초점을 두어 젠더에 입각한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특징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회 구성이 르 권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어떻게 해체하여 소통과 관용, 자연과의 교감, 타자와의 관계 수립 등 대안적 가치관들을 제시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르 권의 텍스트가 독자들이 지닌 젠더 관점들을 어떻게 낫설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젠더 인식에 이르게 하

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젠더 인식이 어떻게 이원론의 해체로 이어지는지, 젠더 구성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계센 행성과 젠더

여성 과학소설의 유토피아 구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점은 젠더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멜로는 여성 과학소설가들의 성차를 극복한 대안 사회의 모색 과정에서 젠더에서 해방된 사회의 패러다임을 세 가지 구도로 탐색해왔다고 분석하고 있다(243). 첫 번째 구도는 남녀 분리주의적 입장에서 남성들을 모두 배제하고 여성만으로 구성된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많은 여성 과학소설가들이 분리주의적 관점에서 여성들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적 여성문화가 강력히 재확인되는 공동체를 염원하였다. 두 번째 구도는 여성과 남성을 한 몸에 지닌 양성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양성성이 젠더 분리의 문제점을 극복한 평등 사회의 기반이라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 번째 구도는 남성과 여성 양자가 존재하면서 진정한 평등을 이룬 사회 구성으로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구성에서 어슐러 르 쿤, 제임스 팀트리 이세(James Tiptree Jr), 조애너 러스, 마지 피어시 등의 작가들이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공동체 탐색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과학소설 장치를 효율적으로 적절히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루시 사기슨(Lucy Sargisson)은 플라톤(Plato)이나 토머스 모어(Thomas More) 같은 전통적 유토피아 장르가 기본적으로 폐쇄적 성격을 지녔으므로 부적절하며, 유토피아를 이러한 완벽한 사회 모형대신 아이러니와 풍자의 신선한 접근방식으로 간주한다면 비판적 구조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페미니즘에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36). 즉 유토피아의 현실 비판적 속성

과 새로운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열린 유토피아 개념이 페미니즘과 대응하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어둠의 왼손』에서 르 권이 계센 행성을 통해 구축하고자한 유토피아적 비전도 이상적 미래를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하기보다 의식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르 권 당대의 지배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당대 정치나 사회구조들 안에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실행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창조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르 권의 새로운 관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촉발되었고³ 그 중심에 젠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르 권은 거무스름한 피부색에 양성인 주민들이 사는 계센 행성을 통해 젠더가 유동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조형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구성에 하나의 참조항을 마련해주고 있다. 루이스 콜(Lewis Call)은 계센의 젠더 구성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나 다너 해러웨이(Donna Haraway)같은 반본질론자들이 개발한 포스트모던 젠더 이론들에 상응한다고 지적한다(92). 계센의 젠더는 절대적 범주가 아니라 유동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동적 젠더 개념을 부각시키는 데 텍스트의 화자도 완결되지 않는 자신의 서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중심화자인 켈리는 사실을 기록한다고 하나 “진실은 상상의 문제”(1)이며, “사실들은 더 이상 단단하고 일관성있으며 등글고 진실하지 않다...”(1)라고 이야기한다. 콜은 이러한

³ 이러한 젠더 문제 외에도 독특한 서술 구조, 텍스트의 인류학적 양상,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이야기들에 퍼져있는 도교 체험의 영향 등이 주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Smilie: <https://adanewmedia.org/2017/10/issue12-smillie/>) 르 권은 기술이나 과학보다는 사회과학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고 신화와 전설 등의 모티브를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이버펑크적 특징을 지닌 동시대의 여성과학 소설가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루이스 콜은 『어둠의 왼손』 텍스트의 구조나 내용에 대해 포스트모던 결각으로 평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텍스트의 실험적이고 파편화된 서술 형태가 새로운 젠더 모형을 제시하는 데 효율적임을 언급한다(91).

급진적 서술책략의 인지적 효과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특징을 지니는 동시에 놀랄 만큼 만족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91). 콜은 『어둠의 왼손』의 담론이 결코 전체주의적이지 않으며 이분법적 사고나 완결되고 질서 있는 서술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있으며 어떠한 종결점에 도달할 수 없는 텍스트라고 지적하는데(92), 이는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추구하는 이분법적 젠더 구성의 해체에 걸맞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르 쿼는 계센인들의 젠더가 지구와는 다른 양성성으로 구성된 사실을 상세히 부각시키면서 이의 사회적 중요성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계센인들은 22일 동안 양성성을 지니고 케머(kemmer)라는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만 주변 환경이나 잠재적 파트너들, 기간 동안의 자신의 성향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계센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어느 쪽도 될 수 있으며 성적 특성들이나 역할로 인간을 분류하지 않는 사회를 이루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한 달에 한번 휴식을 취하며 케머기간에는 일할 필요가 없는 점, 모든 것이 지속되는 고통과 축제와 같은 열정 앞에 무너지는 점과 대비하여 그들 삶의 오분의 사는 성과 무관한 삶을 영위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겨울 행성 계센의 일상적 삶은 성이 없는 사회이다.

이들은 젠더가 속한 지구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영위한다. 계센에는 어린이도 어머니나 아버지와 성심리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센에는 “오이디푸스 신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의 동의 없는 성교나 강간은 없다”(94) 등의 보고서 항목이나 “계센인들의 성적 욕구는 천성상 엄하게 규정되고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회에 의해 그렇게 많이 간섭받지는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양성 사회보다도 성에 대한 규율 정하기, 방향틀기, 억압하기 등이 적다. 금욕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탐닉도 전적으로 수용된다. 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적 욕구불만 양자 다 극히 드문 현상이다”(177) 라는 젠더의 관찰에서 양성인 사회의 성문화를 볼 수 있다.

이는 샬롯 길먼(Charlotte Gilman)의 『허랜드』(*Herland*)나 조애너 러스의 「상황이 바뀐다해도」(“While it changed”) 처럼 남성을 배제시키고 여성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이상으로 제시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소설들과 차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나스는 이러한 남녀 분리주의에 입각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와 달리 르 권이 제시하는 양성성은 하나의 메타포라고 지적한다(147). 즉 작가가 중요하게 간주되는 모순들을 없애거나 초월하는 유토피아적 비전을 명백하게 구축하게 해주는 메타포라고 지적한다(Annas 147). 아나스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양성성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여 성적 양극화로부터 양성성으로 이동하는 시도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변증법적 통합적 사고로 이동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147). 아나스의 지적처럼 르 권은 양성성을 자신의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의 메타포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7장 「성에 관한 의문」(“The Question of Sex”)은 계센 행성에 대한 제 1차 에큐멘 조사대 옹 토트 오평(Ong Tot Oppong) 조사원의 현장 보고서로 계센의 성과 젠더에 관해 보고서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라 배리(Norra Barry)와 메리 프레스콧(Mary Prescott)은 7장이 정보 제공의 반복이자 절정이지만 르 권은 정보 제공의 완성보다는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57). 즉 이 장은 독자들이 자신의 선입견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젠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계센인들의 성에 관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할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젠리는 성에 대한 의문을 넘어서서 자신의 성장하는 능력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Barry & Prescott 57). 이 보고서 중 임신과 출산에 관한 부분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시할 점: 누구든 간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는 아주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그 심리적 효과는 무한하다. 17세에서 35세의 모든 이들이 (님(Nim)이 말하듯) “출산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행성의 여성들이 심리적 혹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출산에 매여 있는 것처럼,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완전히 출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을 뜻한다. 부담과 특권은 아주 동등하게 공유되며 모든 이가 똑 같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다른 행성의 자유로운 남성들처럼 아주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⁴

이처럼 17세에서 35세사이의 모든 이들은 출산에 묶여 있을 수 있으며 아무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임신과 출산이 젠더 구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만이 임신과 출산에 매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르 귄의 당대 현실에 대한 실험적 대안 제시라고 볼 수 있다. 르 귄의 이러한 양성성 구성과 출산의 평등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해 아렌 아이주라(Aren Aizura)는 1960년대의 아메리칸 드림의 기준으로부터의 일련의 탈주를 창조하려는 르 귄의 시도라고 지적한다(Aizura, web). 아이주라가 지적한대로 르 귄의 유동적 젠더 개념에서 성적 노동, 감정적 노동, 돌봄의 노동에 대한 당대의 젠더화된 관점이나 인종주의적 관점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볼 수 있다. 아이주라는 르 귄의 이러한 비판을 고려할 때 『어둠의 왼손』을 유토피아적 텍스트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르 귄은 생물학적 생식 차이를 기본적으로 유동적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스럽고 표준이라고 받아들이는 젠더 분리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대 아메리칸 드림 기준으로부터의 탈주 시도는 제대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막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르 귄의 연 이은 작품 세계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키르히데에서 성년되기」(“Coming of Age in Karhide”)라는 단편에서는 『어둠의 왼손』에서 양성인에게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남/녀로 젠더화된 대명

⁴ Ursula K. Le Guin. *The Left Hand of Darkness*. New York: Ace, 1969. 93. 이후 인용문부터는 LHD 면수로 표기함.

사 사용을 피하여 당대의 젠더 개념으로부터 완결된 탈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단편에서 계센인들은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유동적 정체성 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더욱 강조되며 이러한 정체성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고정된 젠더 개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⁵

이처럼 르 권의 계센 행성 구축은 다른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구성과 차별성을 보이는데 이를테면 마지 피어시의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Woman on the Edge of Time)의 인공수정 생식이나 술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의 임신을 전적으로 없애는 비전 등의 유토피아적 비전과 차이점을 지닌다. 르 권은 육체를 초월한 생식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고, 기계에 생식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며 친족관계나 사랑의 관계를 필요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어둠의 왼손』에 설정된 사회관계나 기술은 공동체안의 상호 관계 중심이며 위계적 경계를 피하고 있다.

주시할 점: 인간성을 강자와 약자, 보호/피보호, 지배/순종, 주인/노예, 능동/수동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 사실상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원론 성향이 이곳 겨울 행성에서는 축소되거나 바뀌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LHD 93-94)

이러한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행성의 이원론 해체적 구도이며

⁵ 르 권은 「키르히데에서 성년되기」에서 자신이 계센인들을 남성 대명사로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고 있지만, 새로운 대명사를 만들어내지 않고 케머기에 있지 않은 주민들을 이름과 가족 혹은 사회적인 관계로 식별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작품은 공동체들을 확장된 가족의 네트워크로 뒤섞인 것으로 제시하며 케머하우스에서 주인공 소브(Sov)는 첫 케머에서 여성이 되고 적어도 다섯 명과 성행위를 하며 이를 50년의 공백이후 사건들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성애 중심이며 동성애는 막간의 정지된 순간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이야기의 화자가 동성애에 참여하는 케머 하우스까지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케머하우스에서의 성행위 기록을 하기도 하며 이를 알렉시스 로디안(Alexis Lothian)은 “다형태적 성적 유토피아(Polymorphous sexual utopia)”(391)의 비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미래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다. 실제로 이원론의 극복으로 인해 계센에는 전쟁이 없고 성역할에 따른 노동의 분리도 없으며 강간도 없다. 진보를 향한 강력한 서두름도 없고 사람이나 땅을 착취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들은 위계질서를 중시하면서도 무정부적 상태를 존중하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철학/종교는 예언(Foretelling) 의식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 분산된 요소들을 함께 엮는 과정을 통해 이르게 되는 심오한 초월의 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르 쿨은 이러한 유쾌한 공동체는 여성원리가 근본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Is Gender Necessary, Redux” 165). 여성원리는 강제가 없는 질서를 가치있게 여기며 힘이 아니라 관습에 의한 규율을 중시한다. 르 쿨은 법을 강요하고 어긴 쪽이 남성이었다고 보며. 계센에서는 두 원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중심화하려는 힘에 대해 탈중심화, 고정된 것에 대해 유연성 있는 것, 직선적인 것에 대해 원형인 것”(“Is Gender Necessary, Redux” 165)이라는 두 원리의 균형에 대한 설명에서 이상적 공동체로 설정한 계센 행성의 중심 원리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센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벗어나 양극의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센의 수상이었다가 해고된 에스트라벤은 남성의 육체적 힘과 여성의 인내심을 결합한 인물로 이상적 양성인으로 제시된다. 에스트라벤은 지적 열정, 정치적 기지, 예지력, 강력한 감정이입, 계센 종족의 보존을 위한 심오한 인도주의적 관심, 다른 종족들과의 평화로운 접촉들의 개발, 행성간 평화를 위한 자기희생 등의 덕목들을 지닌 이상적 인물로 제시되어 있으며 앤 멜로는 에스트라벤을 텍스트의 진정한 영웅으로 보고 있다(252). 그러나 멜로는 양성성의 모범적 면을 보여주는 에스트라벤이 겐리라는 남성 방문객의 시각과 반응을 통해 제시됨으로써 에스트라벤의 진정한 양성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설득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252). 겐리의 주요 문제는 양성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지구인의 시각으로 계센 행성 거주민의 양성성과 이와 관련된 케머 기간이나 생식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에스트라벤에 대한 평가도 자신의 남/녀 이분법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므로 에스트라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켄리는 에스트라벤의 여성적 특질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낌을 볼 수 있다.

겨울 행성에 온지 거의 이년이 다되어 가지만 나는 아직 이 행성 사람들의 눈으로 이들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엔 한참 멀었다. 노력해보았으나 내 노력은 계센인들을 내 자의식에 따라 처음엔 남성으로 다음엔 여성으로 보는 형태로 되고 말았고 나 자신에게는 아주 본질적이지만 그들의 본성에는 아주 부적절한 범주들안에 이들을 강제로 밀어 넣는 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김이 피어오르는 시큼한 맥주를 홀짝이며, 식사중 에스트라벤의 행동이 아주 여성스러웠고 매력과 재치가 넘쳤으나 실체가 결핍되어 있는 느낌, 허울만 꾸민 능란함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상 내가 에스트라벤을 싫어하고 불신하는 건 바로 이런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여성성 때문이었을까? 왜냐하면 희미한 어둠속에서 내 곁에 있는, 거무스름한 피부를 지닌 강력한 존재인 그를 여자로 생각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스트라벤을 남자로 생각할 때마다 나는 뭔가 그릇된 느낌, 사기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에스트라벤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그를 향한 나의 태도가 잘못된 것일까. (LHD 12)

켄리는 여기서 지구인의 이분법적 젠더 개념에 입각해서 에스트라벤을 관찰하고 있어 양성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은 계센인들의 전쟁이나 불화에 대한 켄리의 관점에까지 연결됨을 볼 수 있다. 그가 “계센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툼, 살인, 불화, 약탈, 복수, 암살, 고문, 혐오가 이들의 인간적 업적 목록들에 들어있긴 했으나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군대를 구성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동물처럼 혹은 여성처럼 행동했

다.”(49) 는 분석은 남녀 분리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며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존 페닝턴(John Pennington)은 독자들이 사회에 의해 구성된 자신의 젠더화된 관점을 피할 수 없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텍스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젠리가 자신의 관점으로 계센 행성의 젠더에 직면했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곤경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353).

르 쿼이 이러한 편견을 지닌 남성 화자를 설정한 점, 소설 전체를 통해 계센인들에 대해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점, 작품 전체에 여성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어둠의 왼손』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작품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⁶ 페닝턴은 이러한 논쟁들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어둠의 왼손』은 우리의 읽기 체험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352). 페닝턴은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모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 주

6 앤 멜로는 젠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독자들이 에스트라벤을 남성으로 시각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53). 르 쿼 자신도 에스트라벤을 완전히 설득력 있는 양성인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소설을 다시 쓴다면 르 쿼은 대명사를 바꾸기보다 에스트라벤의 여성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생략한 것이 아쉽다— 즉 진정한 양성인으로 왕과 더불어 에스트라벤도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등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슐러 르 쿼은 대명사의 문제도 「겨울 왕」(“Winter’s King”)에서 모든 남성 대명사들을 여성 대명사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Mellor 254 참조). 사라 러파누(Sarah LeFanu)는 르 쿼이 과학소설은 〈스타워즈〉(Star Wars) 종류의 정치실험이 아니라 작가로 하여금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도록 허용하는 정치적 실험을 위해 과학소설이 제공하는 자유를 부정했다고 지적한다(143). 지웰 파커 로데스(Jewell Parker Rhodes)도 르 쿼이 양성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정확히 묘사할 새 단어들 왜 발견해내지 못했는지 의문을 던진다(115). 러파누와 로데스는 르 쿼이 전통적 서술관습에 의존하고 성을 구분하는 영어의 대명사를 대치할 새 언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다. 로데스는 페미니스트적 사고 실험이 성공하기에 양성성의 주제가 너무 복잡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120). 알렉시스 로시안(Alexis Lothian)도 르 쿼의 페미니즘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어둠의 왼손』의 이원성(duality)이 젠더화된 이분법에 너무 근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386).

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과학소설이 일상 언어와 대부분 관습적 서술 구조를 이용하여 불가능한 영역을 창조해낸다는 관점에서 보면, 르 권의 남성 대명사나 남성 관찰자 사용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결국 우리의 제한된 관점을 상기시키고 수정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ennington 354). 여러 논자들 가운데 페닝턴의 읽기가 르 권의 의도에 비교적 상응하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르 권의 텍스트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젠더 구성을 제시한 점은 이후의 여성 과학소설가들이 구성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에 주요한 참조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논점들에 대해 르 권 자신도 1976년에 발표했다가 1988년 다시 보강하여 발표한 「젠더가 필요한가」에서 자신의 입장을 잘 규명하고 있다. 르 권은 소설이 “자신의 의식의 기록, 생각의 과정”(156)이라고 언급하면서 과학소설의 본질적 기능들 중 하나는 “정확히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하는 것, 즉 사고의 일상적 방식을 뒤집는 것, 아직 우리 언어가 어떤 단어로도 나타낼 수 없는 메타포들, 상상력의 실험들”(159)이라고 표명한다. 즉 르 권은 상상력의 실험으로 독자의 젠더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에 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가 『어둠의 왼손』을 집필할 때 “계센인들의 성적 설정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진정으로’ 구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한 사고의 실험을 한 것”(158)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가 관심을 둔 것은 “관습적 사고방식의 역전, 우리의 언어가 아직 해당되는 단어를 가지지 못한 메타포들, 상상력의 실험”(163)이며 “나는 무엇이 남았는지 찾아내기 위해 젠더를 없앤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추측컨대 단순히 인간일 것이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공유하는 영역을 규명해줄 것이다”(163-64)라고 밝히고 있다.

르 권의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시피 르 권의 새로운 세상 만들기를 위한 사고 실험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르 권이 “왕이 임신했

다”(100)라고 했을 때 이는 독자에게 요구하는 읽기 책략의 중심 메타포라고 볼 수 있다. 즉 독자로 하여금 양성성의 독자가 되도록 요구하며 전통적 젠더화된 관점에서 읽기를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젠더 문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독자로 하여금 성적인 존재보다는 총체적 인간으로 타자를 보는 것이 어떠한 체험이 될 것인지 상상해보도록 유도한다. 켄리도 텍스트의 대부분을 이러한 도전과 씨름하면서 에스트라벤과 빙하에서의 시련을 공유한 결과 전통적 젠더관점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III. 소통/관계성과 유토피아

양성성이 주요 특징인 계센 행성이 르 쿤 당대 미국의 젠더나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공동체로 적용되기 어렵지만 혁신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인종주의와 이원론적 젠더 구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구축의 예시로 제시된 계센 행성은 르 쿤 당대의 미국 사회보다 더 이상적인 유토피아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계센 행성에 키르히데와 오르그레인의 영토 분쟁이 있긴 하나 마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사회구조이며 고유의 신화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르 쿤은 이곳 공동체가 위계적으로 구성된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적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통치 체제임을 시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마거리는 계센이 성 차별이 없는 사회, 따라서 지배와 착취, 강간, 전쟁이 없는 공동체로서 페미니스트의 ‘사회적 꿈’을 일정 부분 그리고 있는 점에서 많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소설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132). 마거리는 르 쿤이 젠더뿐만 아니라 인종의 위계를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계센인들의 피부색이 거무스름한 유색이며 켄리의 피부색은 더 검은 유색인종으로 제시된 점, 즉 유색인종들의 이야기를 다룬 점은 기존의 백인 중심 과학소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본다(132).

아울러 르 권은 겐리와 에스트라벤의 진정한 소통과 관계수립에 역점을 두어 젠더를 초월한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과 성장을 자신의 유토피아 구성에 주요한 요소로 도입하고 있다. 겐리는 처음에 남성적 시각으로 계센 사회를 보지만 독자들은 궁극적으로 양성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겐리의 여정을 재평가하게 된다. 겐리가 초기에 여성성 때문에 불편해했던 에스트라벤과 함께 빙하를 건너는 여정을 통해 젠더 모호성에 대한 겐리의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해결되는 과정은 독자에게 동일한 인식 과정을 유도한다.

에스트라벤이 겐리를 풀레펜 농장(Pulefen Farm)에서 구조하면서 키르히데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겐리는 에스트라벤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서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 두 사람이 고브린(Gobrin) 빙하를 함께 건널 때 목숨이 위태한 순간을 여러 번 겪게 되며, 겐리는 빙하의 깊이를 보여줄 그림자 없이 튼드라를 건너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눈 폭풍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겐리는 에스트라벤의 헌신적 노력을 이해하게 되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르 권의 도교의 영향, 즉 결과나 목적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두 사람의 여정에 배어있으며 이들의 여정은 겐리가 계센인들을 설득하여 에큐멘 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결과보다 더 의미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센인들의 삶의 속성에 대해 자신이 오해한 면이 있었음을 깨닫는데, 특히 양성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 코넬의 지적대로 겐리는 계센에서 자기역할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고 독자로서 해석자로서의 기술도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의식도 더 예리해진다(318). 아나스는 『어둠의 왼손』이 겐리의 점진적 인식의 이야기, 이원론과 성적 양극화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적 초월을 다룬 이야기라고 지적하며(151), 크레이그 배로우(Craig Barrow)와 다이애넌 배로우(Dianan Barrow)도 겐리의 성장에 대해 지적하면서 겐리

가 계센인들의 성적 균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도록 배운다고 지적한다 (Barrow 94). 겐리가 텍스트 말미에 젠더 분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총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데, 계센인들의 남성적 자질과 여성적 자질의 공존에 대해 즉 양성의 균형에 대해 올바른 자각에 이른다. 겐리와 에스트라벤이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겐리는 자신이 에스트라벤, 더 나아가 모든 계센인들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는 볼까봐 두려워했던 것, 그에게서 못본척 해왔던 것을 다시금, 그리고 영원히 보게 되고 말았다. 그건 그가 남자인 동시에 여자라는 사실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그 두려움의 원천에 대해 설명할 어떤 필요성도 사라져버렸다. 마침내 내게 남은 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그전까지 나는 그를 거부했고 그의 실제 자체를 거부해왔었다. 자신이 계센에서 나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인 동시에 내가 믿지 못하는 유일한 계센인이라던 그의 말이 정말 옳았다. 에스트라벤은 전적으로 나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준 유일한 이였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개인적으로 좋아했으며 내게 개인적으로 충실함을 보여 왔다. 따라서 내게도 동일하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여자인 남자, 남자인 여자인 그에게 나의 신뢰와 우정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LHD 248)

여기서 겐리는 에스트라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겐리는 태극 문양을 그려 보이며 도교의 음양(yin/yang)상징들을 도용하여 에스트라벤에게 “음과 양입니다. 빛은 어둠의 왼손... ‘그 다음이 어떻게 되지요? 빛, 어둠, 두려움, 용기, 차가움, 따뜻함, 여성, 남성, 그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렘, 둘이자 하나이지요. 눈 위의 그림자입니다”(267)라는 말을 해준다. 겐리의 말에서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고 양극의 조화에서 오는 존재의 총체성에 대한 인식에 달함

을 볼 수 있다.

르 권은 이러한 소통과 변화의 과정을 복합적인 텍스트 구성 방식을 통해 제시하는데, 에스트라벤이 케머기에 들어갈 때 겐리와 에스트라벤은 가장 가까운 순간이 되고 이는 서로 다른 화자의 목소리들로 구성된다. 16장에서 에스트라벤은 자신의 목소리로 그 순간을 자신의 관점에서 묘사하며 18장에서는 겐리가 같은 순간을 자신의 목소리로 서술한다. 가운데 장은 오르고레인의 창조신화, 즉 세계와 민족과 첫 케머 경험을 포함하는 신화가 소개된다. 이 세 장은 에큐멘 사절의 목소리, 게센인의 목소리, 게센 문화를 함께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르 권은 이처럼 겐리와 에스트라벤의 일인칭 서술, 지역신화와 이야기들, 에큐멘의 사자들이 기록한 사회학적 보고서 등 다양한 서술 장치들을 동원한다. 코넬의 지적대로 이러한 서술패턴은 겐리가 그의 여정을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서술이 아니라 독자를 위해 자신의 체험을 다원적 차원에서 재생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323). 또한 겐리는 자신의 사절로서의 임무도 중요하나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추적해감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데, 궁극적으로 전체 여정의 과정은 양성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분법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다.

에스트라벤이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를 했지만 기본적인 충성심을 지니고 겐리와 사랑과 소통의 합일에 이르는 과정은 텍스트에서 겐리의 성장과 병행되어 있다. 게센의 기준으로 볼 때 에스트라벤은 자기 나라를 배신하였고 형제와 케머기간에 결혼과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계율을 어겼으며 형제의 자살에도 책임이 있다. 자신도 자살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자살에 대한 반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르 권은 에스트라벤의 관점을 통해 경계 짓기와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에스트라벤은 카르히데와 오르고레인 사이의 끝없는 국경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경계 짓기의 이원론적 사고에 혐

오감을 드러낸다.

어떻게 개인이 한 나라를 미워하거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티베는 그에 대해 말하긴 하나 나한테는 그런 말할 재주가 없군요. 나는 사람들을 알고, 소도시, 농장, 언덕, 강, 바위들을 알고 있고, 가을이 되면 언덕 위의 어느 경작지 곁으로 어떻게 일몰이 내려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경계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인 뒤 이름이 적용되지 않은 곳은 더 사랑해선 안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자기 나라가 아닌 곳은 증오한다는 것인가요? 그럼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자신에 대한 사랑인가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서도 안되고 직업적 일이 되서도 안됩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한 에스트레 영지의 언덕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류의 사랑에는 증오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난 무지하길 바랄 따름입니다. (LHD 211)

에스트라벤의 질문들은 선/악 같은 이분법적 경계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면서 경계 짓기를 초월하여 사랑에 기반을 둔 이상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에스트라벤은 계선이 더 큰 가능성을 지닌 세계를 위해 젠리의 에큐멘 연합 가입 제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자신을 희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르 쿼는 젠리의 긴 여정을 통해 어둠의 이미지와 빛의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이를 제시하는데, 노라 배리는 르 쿼가 그림자(shadow)의 이미지를 리드미컬하게 사용하는 데 주목한다. 배리는 르 쿼가 에스트라벤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개념을 초월하는 데 사용한다고 지적한다(160). 에스트라벤이 종일 자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토르메르의 시」(“Tormer’s Lay”)를 암송하는 데서 르 쿼의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빛은 어둠의 왼손
 어둠은 빛의 오른손.
 둘은 하나,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케머에 들어가 함께 누운 연인들처럼,
 함께 잡은 두 손처럼,
 결과와 과정처럼.

Light is the left hand of darkness
 and darkness the right hand of light.
 Two are one, life and death, lying
 together like lovers in kemmer,
 like hand joined together,
 like the end and the way. (LHD 233)

빛과 어둠의 관계, 결과와 과정의 관계를 이분법을 넘어선 세계의 지향으로 설정한 이 시는 마거리의 지적대로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131). 이러한 이분법의 초월은 계센의 시프그레소(shifgrethor)가 언급됨으로써 다시 한번 경계 짓기를 넘어서야함이 강조되고 있다. 켈리는 시프그레소가 그림자에 해당하는 고어임을 알게 되지만 초기에 “위신과 체면, 지위와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얽힌, 말로 옮길 수 없는 카르히데의 사회적 권위와 계센 문명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관계된 문제”(14)로 규명했듯이 시프그레소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켈리의 우주선이 자신들의 행성에 도착하는 걸 꺼리는 오르고레인 사람들은 외계인에게 굴복하는 것이 시프그레소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믿는데, 이에 대해 에스트라벤은 변화의 가능성이 차단되었음을 지적한다. “오르고레인과 카르히데는 양자 다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의 양 방향을 따르길 멈추어야한다. 그리고 그 순환을 깨고 나와야한다”(153)고 언급하는 것이다. 시프그레소를 깨고 나와야한다는 것은 타자를 수용하고 이분법을 초월하는 것이며, 실제로 에스트라벤은 시프그레소를 깨면서 켈리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에스트라벤은 겐리에게 왜 여럿이 아니라 혼자 사절로 파견되었나를 물어보는데, 겐리의 답변은 게센이 에큐멘 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배경을 잘 해명해준다.

그게 에큐멘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그 관습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 그 이유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지만요. 저는 제가 혼자 여기 온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홀로 무방비의 상태로 와서 어떤 위협도 될 수 없고 어떠한 균형도 바꾸어놓을 수 없으며 침략이 아니라 단지 사자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 혼자서 당신들의 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들의 세계에 의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혼자여서 저는 저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합니다. 혼자서 제가 만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맺으려는 관계는 비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며 인적 관계이며 정치적인 것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아닙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도 아닙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인 것입니다. 정치적이지만 실용적이지도 않으며 신비로운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큐멘은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집단입니다. 에큐멘의 공식 정책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원칙의 정반대입니다. (LHD 259)

겐리의 답에서 겐리는 에큐멘 사절로서 식민화와 문화파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새롭고 낮은 세계에 혼자 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스 비트너(James Bittner)는 르 쿨의 에큐멘이 20세기 후반 과학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제국주의적 은하 제국들과 차별성을 지니며, 일종의 무정부주의적 대안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110). 에큐멘의 철학은 타 행성의 식민화가 아니라 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월한 사회에서 계몽이 필요한 지역에 파견된다는 관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새로이 접촉한 행성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에큐메네 가입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으며 젠리는 연합이 자발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코넬의 지적처럼 이는 에큐메네의 철학에 중심인 소통의 시작이 젠리의 미션 성공보다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322). 젠리는 에큐메네가 본질적으로 정부가 아니며 신비로운 것과 정치적인 것을 다시 결합시키려는 시도이며 “이런 시도는 물론 거의 실패이나 그 실패가 여태까지 선조들의 성공보다 인류에게 더 유익을 주었다”(136-137)고 진술한다.

에큐메네 사절로서 젠리의 의무는 계센 행성 밖의 삶의 가능성에 대해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계센인들에게 에큐메네 연합에 대해 합리적인 설득을 하는 것이다. 젠리는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웬디 피어슨(Wendy Gay Pearson)의 지적처럼 르 권은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꿀 수 있으며 일단 그 변화는 시작이 되면 지속된다고 보고 있다(188). 이는 결국 에스트라벤과의 소통을 통해 젠리의 설득 임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에큐메네나 계센 양자에게 더 나은 세계로의 진전을 보여준다는 데서 입증될 수 있다.

르 권은 『어둠의 왼손』에서 「젠더가 필요한가」, 「키르히테에서 성인되기」에 이르기까지 외계의 행성 탐색을 통해 젠더와 정체성에 대해 진화하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이 텍스트들은 미국의 페미니스트적 사고와 문화의 변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르 권의 유토피아적 비전은 1960년대 미국 사회의 젠더 문제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새겨볼 수 있다. 특히 『어둠의 왼손』에서 르 권의 양성성 구성은 젠더가 이성애기준,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백인 우월주의적 권력구조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 또한 계센 행성의 젠더 묘사가 단지 젠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열린 유토피아를 위한 사고의 변형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유도하는 점에 주

목해볼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르 쿤의 『어둠의 왼손』은 여성 과학소설이 사실주의의 제한된 관습을 넘어서서 유토피아적 미래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요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르 쿤의 유토피아 구성은 앞서 언급한대로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수많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젠더에 대한 전통적 가설을 해체하여 일상적 인간 현실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양상을 낫설게 함으로써 젠더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르 쿤은 당대의 가부장적 구성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회관계들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젠더 구성을 하고 있다. 아나스의 지적대로 르 쿤의 양성성에 대한 비전은 성적 이원론을 초월하는 유토피아적 가능성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156). 르 쿤은 미래 사회의 구성 청사진들을 서술 관점의 변환, 신화, 전설, 보고서 등의 다양한 서술 책략을 통해 복합적으로 조명하며 르 쿤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해체하여 소통과 관용, 자연과의 교감, 타자와의 관계 수립 등 대안적 가치관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에스트라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젠더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젠더에 대한 관점을 수정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자들의 젠더에 대한 인식 변화로 연결된다는 데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르 쿤은 독자들이 지닌 젠더 관점들을 낫설게 하여 새로운 젠더 인식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통해 젠더 구성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르 쿤이 제시한 양성성이 핵심인 가상적 공간은 이후 유토피아의 개념이 더욱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르 쿤이 인종과 젠더로 위계화된 당대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계센 행성의 구성을 통해

대안 공동체를 제시하여 이러한 유토피아적 비전이 더 성숙하고 진화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둔 점은 전통적인 유토피아 구성에서 더 진전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르 귄은 이러한 열린 유토피아 구성을 통해 서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원론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르 귄 이후 진전된 여성 과학소설의 유토피아 구성에 중요한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용 문헌

- Annas, Pamela J. "New Worlds, New Words: Androgyny in Feminist Science Fiction." *Science-Fiction Studies* 15 (1978): 143-56.
- Aizura, Aren. "Communizing Care in *The Left Hand of Darkness*." *Ada: Journal of Gender, New Media, and Technology* 12 (2017): <<https://adanewmedia.org/2017/10/issue12-aizura>>
- Barrow, Craig, and Diana Barrow. "*The Left Hand of Darkness*: Feminism for Men." *Mosaic* 20 (1987): 83-96.
- Barry, Nora. Mary Prescott. "Beyond Words: The Impact of Rhythm as Narrative Techniques in *The Left Hand of Darkness*." *Extrapolation* 33.2 (1992): 154-65.
- Bartowski, Frances. *Feminist Utopias*. Lincoln: U of Nebraska P. 1991.
- Bassnett, Susan. "Remaking the Old World: Ursula Le Guin and the American Tradition." *Where No Man Has Gone Before: Women and Science Fiction*. Ed. Lucie Armitt. London: Routledge, 1991. 50-66.
- Bittner, James.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Ursula K. Le Guin*. Ann Arbor, MI: UMI Research P, 1984.
- Call, Lewis. "Postmodern Anarchism in the Novels of Ursula K Le Guin." *Substance* 36.2 (2007): 87-105.
- Chang, Junghee. *Understanding SF Genre*. Seoul: Dongin, 2016.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서울: 동인, 2016.]
- _____. "Technoscience and Women's Body: James Tiptree Jr.'s "The Girl Who Was Plugged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Novel* 23.3 (2016): 101-23.

[장정희. 「과학기술과 여성의 육체: 제임스 팀트리 2세의 「접속된 소녀」. 『현대영미소설』 23.3 (2016): 101-23.]

- Cornell, Christine. "The Interpretive Journey in Ursula K. Le Guin's *The Left Hand of Darkness*." *Extrapolation* 42.4 (2001): 317-27.
- Fayad, Mona. "Aliens, Androgynes, and Anthropology: Le Guin's Critique of Representation in *The Left Hand of Darkness*." *Mosaic* 30 (1997): 59-73.
- Hollinger, Veronica. "Feminist Theory and Science Fic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Eds. Edward James and Farah Mendlesohn. Cambridge: Cambridge UP, 2003. 125-36.
- _____. "(Re)reading Queerly: Science Fiction, Feminism, and the Defamiliarization of Gender." *Science Fiction Studies* 26 (1999): 23-40.
- Kim, Myeong-jin. Imagining Utopia of Future Times from *New Atlantis* to *Walden*.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6 (2020): 1-32.
- [김명진.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월든』의 틀로 미래 시대의 유토피아 상상하기」. 『신영어영문학』 76 (2020): 1-32.]
- Le Guin, Ursula K. *The Left Hand of Darkness*. New York: Ace, 1969.
- _____. "Is Gender Necessary?, Redux(1988)." *The Language of the Night: Essays on Fantasy and Science Fiction*. Ed. Susan Woo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2. 155-72.
- _____. "Coming of Age in Karhide." *The Birthday of the World*. New York: HarperCollins, 2002. 1-22.
- LeFanu, Sarah. *Feminism and Science Fiction*. Bloomington: Indiana UP, 1989.
- Lothian, Alexis. "Grinding Axes and Balancing Oppositions: The Transformation of Feminism in Ursula K. Le Guin's Science Fiction." *Extrapolation* 47. 3 (2006): 380-95.
- Magarey, Susan. "Dreams and Desires: Four 1970's Feminist Visions of Utopia." *Dangerous Ideas*. University of Adelaide Press, 2014: 121-45.
- Mellor, Anne K, "On Feminist Utopias." *Women's Studies* 9.3 (1982): 241-62.
- Merrick, Helen. *The Secret Feminist Cabal: A Cultural History of Science Fiction Feminisms*. Seattle, WA: Aqueduct P, 2009.
- Moylan, Tom. *Demand the Impossible: Science Fiction and the Utopian Imagination*. Bern: Peter Lang, 2014.
- Pennington, John. "Exorcising Gender: Resisting Readers in Ursula K. Le

- Guin's *The Left Hand of Darkness*." *Extrapolation* 41.4 (2000): 321-58.
- Rhodes, Jewell Parker. "Ursula Le Guin's *The Left Hand of Darkness*: Androgyny and the Feminist Utopia." *Women and Utopia*. Eds. Marleen Barr and Nicholas D. Smith. New York: University P of America, 1983. 108-20.
- Russ, Joanna. "The Image of Women in Science Fiction." *Images of Women in Fiction: Feminist Perspectives*. Ed. Susan Koppleman Corillon. Bowling Green, Ohio: Bowling Green University Popular P, 1972. 79-94.
- Sargisson, Lucy. *Contemporary Feminist Utopianism*. London: Routledge, 1996.
- Similie, Tuesday. "Radical Imagination and *The Left Hand of Darkness*." *Ada: Journal of Gender, New Media, and Technology* 12 (2017): <<https://adanewmedia.org/2017/10/issue12-smillie>>
- White, Donna R. *Dancing with Dragons: Ursula K. Le Guin and the Critics*. Columbia, SC: Camden House, 1999.

chang57@kw.ac.kr

논문접수일: 2020. 3. 31 / 수정완료일: 2020. 11. 19 / 게재확정일: 2020. 11. 25